



공통감독체계(ComFrame)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 보험그룹은 국제적 영업활동과 규모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감독자의 재량도 그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아직 글로벌 보험그룹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준비가 필요함.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¹⁾)는 지난 7월 2일, 글로벌 보험그룹(IAIGs²⁾)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IGs, 이하 ‘공통감독체계’라 함) 2차년도 보고서³⁾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감.

● 공통감독체계 작업은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국제적 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계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⁴⁾되었으며, IAIS는 2011년 7월 1일 1차년도 개념보고서(Concept Paper)를 발표하였음.

– 공통감독체계는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보험핵심원칙(ICPs⁵⁾)에 기반하여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3) IAIS(2012. 7. 2), "Working Draft of th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4) 공통감독체계의 개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물을 참조하기 바람: 이승준(2011. 1. 17), 「IAIS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115호, 보험연구원.

5)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었음.

- 현재 IAIS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산하의 각 해당 소위원회(Subcommittees)에서 공통감독체계 제정을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까지 제정이 완료되면 이후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조정단계(Calibration Phase)를 거칠 예정이다.
- 이번에 발표된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는 공통감독체계의 범위(Scope of ComFrame), 글로벌 보험그룹(IAIGs), 감독자(Supervisors), 감독이행(Implementation)의 4개 모듈(Module)⁶⁾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모듈인 공통감독체계의 범위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선정 및 감독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두 번째 모듈인 글로벌 보험그룹(IAIGs)은 글로벌 보험그룹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 모듈인 감독자(Supervisors)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감독을 위한 그룹단위 감독자 및 관련 감독자들의 역할 등을 설명함.
 - 끝으로 네 번째 모듈인 감독이행(Implementation)은 공통감독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감독자에 대한 권한 및 그룹단위 감독자의 역할 등 선결요건 등을 기술함.
- 이번 2차년도 보고서는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하여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선정기준(ComFrame Criteria)으로 ① 국제적 활동(International Activity), ② 규모(Size), 그리고 ③ 감독자에 의한 조건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국제성 기준은 최소 3개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 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하여야 충족됨.
 - 규모 기준은 최근 3개년 평균 50억 불 이상의 자산 또는 10억 불 이상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만족할 경우 충족됨.
 - 조건적 재량은 국제성과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거대(국제)보험회사들 중 감독자의 재량(감독협의체)에 의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서 배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됨.
- IAIS는 글로벌 보험그룹 선정의 기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적용 여부는 개별 회원국가의 감독당국이 제시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함.
 - 현재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는 약 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6) 기존의 5개 모듈(module)에서 4개의 모듈로 축소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공통감독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만들.

■ ■ 현재 공동감독체계 논의는 시스템적 중요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IAIS가 금융 안정위원회(FSB)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⁷⁾) 지정 및 감독방법과도 연계될 수 있음.

- 글로벌 보험그룹(IAIG)으로 지정된 보험그룹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이기도 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짐.
- 단, 시스템적 중요성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단순한 규모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으며, 비전통적 보험사업 또는 비보험적 금융활동 규모와 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⁸⁾

■ ■ 공동감독체계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감독체계가 없는 보험권역에서 처음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감독체계 수렴 및 각국 및 권역 간 감독자들 사이의 체계적 협력 및 정보공유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1988년 처음 도입된 바젤 은행 규제도 처음에는 글로벌 은행 규제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결국 모든 은행에 대한 공통된 규제체제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보험권역의 공동감독체계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줌.

■ ■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글로벌 금융공조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공동감독체계와 같은 통일된 글로벌 감독체계의 수요를 보다 높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도 이러한 글로벌 감독기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해당하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감독체계의 글로벌화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IAIS 및 FSB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변화를 보다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7)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8) IAIS(2012. 5. 31),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Assessment and Methodology".